

믿 음 지 혜	BUDDHANARA 부 다 나 라 (불 국 사)	FAITH WISDOM ACTION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1시 : 초하루 인등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 전법기도법회, 교리탐구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둘째주 일요일: 정기법회 오전 11시-오후 1시
Pinckneyvill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5

부다나라(불국사) 후원회 -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9am. (매주 토요일 9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Every Tuesday 6:30 pm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Evening Chenting & Meditation

Intensive Meditation: Feb. 22. (Tuesday) 7:00 PM – 10:00 PM

이달의 법구경

세상은 어둠으로 덮혀 있어
빛을 보는 사람 많지 않고,
새들이 망(網)을 뚫고 날아가지 못하듯
자유의 극락으로 날아가는 사람 많지 않네.

This world is indeed in darkness, and how few can see the light! Just as few birds can escape from a net, few souls can fly into the freedom of heaven.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11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동안거 해제범어]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

경인년(庚寅年) 10 월(十月) 보름에 결제(結制)하여 신묘년(辛卯年) 정월(正月) 보름에 해제(解制)하는데 오늘이 해제일(解制日)입니다.

과연 결제(結制)는 무엇이고, 해제(解制)는 무엇인가?

결제(結制)는 육근 육식(六根 六識)의 모든 허망(虛妄)한 활동을 쉬고 가만히 자기(自己)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돌이켜 보는 것이 결제(結制)입니다.

이것을 얼마 동안 하느냐 하면 구순(九旬)을 하는데 일순(一旬)이 10 일(十日)이니 90 일(九十日)동안 하는 것입니다.

결제(結制)중에 삼학사(參學事)를 마치면 다행이지만 마치지 못했다 하면 역시 해제(解制)는 아니고 결제(結制)중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생사(衆生事)를 다 마치고 료사한(了事漢)이 되는 것이 해제(解制)입니다. 만약 이러한 해제(解制)를 하지 못했다면 타고 있는 육식(六識)의 불을 끄고 본래면목(本來面目)을 회복(回復)하는 결제(結制)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해제(解制)를 못한 상태에선 그저 삼보(三寶)에 죄송(罪悚)하고 외호중(外護衆)과 단월(檀越)에게 부끄럽고 미안(未安)할뿐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자신(自身)이 사람됨을 받아 부처님 법(法)을 만나 무위법(無爲法)을 닦는 대중(大衆)에 참여(參詣)하여 공부(工夫)한다는 사실이 다행스럽고 다행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생(前生)에 내가 무슨 선근(善根)을 심었기에 무슨 복(福)으로 부처님 도장(道場)에서 이러한 호사(好事)를 누리는가 생각하면 가슴이 뻥뻥합니다.

만약 이 소중하고 다행스러움을 인식(認識)하지 못하고 정진(精進)을 소홀히 한다면 아예 공부(工夫)를 하지 않는 중이 있다면 그것은 불법문중(佛法門中)에 흑이요 불한당(不汗黨)이며 속물(俗物)들이라 하겠습니까.

지금 불교(佛敎)의 위기(危機)라고들 합니다. 외도(外道)들이 극성하여 금력(金力)과 권력(勸力), 조직력(組織力), 그리고 지식력(知識力)을 동원(動員)하여 우리 불교(佛敎)를 말살(抹殺)하려 합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인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대비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외도(外道)들이 날뛰다 해도 우리의 대비(對備)가 철저(徹底)하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관경(心地觀經)에 삼보(三寶)의 열가지 위신력(威神力) 가운데 첫번째 견뢰(堅牢)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보(三寶)는 신묘(神妙)하여 어떤 외도(外道)들도 깨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불법내(佛法內)의 부실(不實)한자에 의해서 위기(危機)를 맞는다 했습니다.

불자(佛子)들이 신심(信心)과 원력(願力)과 공심(公心)으로 확고(確固)한 생활을 한다면 어떠한 외도(外道)들도 감히 어찌지 못하겠지만, 만약 자성(自省)과 자정(自淨)의 노력도 없고 신심(信心)도 원력(願力)도 공심(公心)이 없다면 교단(敎團)이 불의(不義)와 부정부패(不正腐敗)에 휩싸이게 되고 불신(不信)과 불화(不和)와 반목(反目)과 갈등(葛藤)으로 걸잡을 수 없는 혼란(混亂)으로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사중(佛事中)에 불사(佛事)는 철저(徹底)한 신심(信心)과 원력(願力)과 공심(公心)으로 정진(精進)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속히 혜안(慧眼)과 법력(法力)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법(佛法)을 해치려는 어리석은 중생(衆生)들과 고통(苦痛)속에 헤매는 중생(衆生)들을 제도(濟度)하는 것입니다.

덕숭산리유잔설(德崇山裏猶殘雪)

덕숭산은 아직 잔설로 덮혔는데

창외일지매화향(窓外一枝梅花香)

창밖에 한가지 매화꽃 향기 그윽하여라.

[동안거 해제범어] 통도사 방장 원명스님

日月爲燈燈不盡(일월위등등부진) 이요

乾坤作屋屋無邊(건곤작옥옥무변) 이라

此身隨處生涯足(차신수처생애족) 하니

飢食松花渴飲泉(기식송화갈음천) 이여다.

일월로 등불을 삼으니 꺼지는 법 없고

건곤으로 집을 삼으니 모두가 내 집이네.

이 몸 가는 곳 마다 내 삶이 풍족하나니

주리면 송화를 먹고 목마르면 샘물 마시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보물을 지니고 있으면서 또 다른 곳에서 보물을 찾으려 합니다. 이렇게 천지로 집을 삼고 일월로 등불을 삼아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 한 물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서 끝없는 자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허울만 수행자라는데 매료되어 있지 않은지 잘 살펴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과 역대조사가 자신의 깨달음만을 위해 각고의 수행을 하신 게 아닙니다.

나를 밝혀서 무명에 허덕이는 다른 이를 이끌어 가려는 보살의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불보살님의 탄식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수행자는 명철한 지혜의 판단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여범한 수행자의 모습인지 스스로를 살피는 것으로 최선을 삼아야 합니다. 타인의 문장이나 말을 좇아 그럴듯한 말을 주워 새기며 묘한 이치를 터득한 양 우쭐하다보면 헛된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영겁토록 생사를 벗어날 길이 아득하다 할 것입니다.

근본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진여법계라고 하는 보물 창고 속에 살면서도 진귀한 줄 모르고 보배를 찾아 헤맵니다. 어리석음의 가시덤불 속을 휘젓고 다니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밖으로 광주(狂走)하던 걸음을 멈추고 자성의 거울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구속되어 있는 속에서 부족하다고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삼독이라는 지독한 그물을 끊어 버리고 천진자연의 걸림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고인의 말씀에 “지난날 깨닫지 못했을 적엔 보배 찾아 나설 때가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했었는데 오늘 알고 보니 빠르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았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인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경책을 삼아야 합니다. 마냥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젊음은 쏠살같습니다. 이것저것 채고 있다가는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대장부의 굳건한 용맹심을 발해서 작은 절개에 걸리지 말고 큰 기틀을 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신심(大信心)으로 우리의 심전(心田)은 아무리 캐내어도 다하지 않는 보고라는 것을 믿을 때 헛걸음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바탕 삼아 정도라는 길이 탄탄해지는 것이니 잘 살펴 헛걸음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해제를 한다면 근본의 매듭을 풀어 참 해제를 해야 합니다. 시작이니 끝이니 하는 것은 근본에 도달하기 전엔 끝없는 연속일 뿐입니다. 풀고 또 풀어서 더 이상 풀 것이 없는 데 이르러야 해제를 한다 하겠습니까.

一切無非佛事(일체무비불사) 어늘	일체 모든 것이 불사 아닌 게 없거늘
何須攝念坐禪(하수섭념좌선) 이며	어찌 생각을 거두어 좌선만 하려하는가?
妄想本來空寂(망상본래공적) 하니	망상이 본래 공하여 적적한 것이니
不用斷除攀緣(불용단제반연) 이어다.	인연들을 애써 끊으려하지 말지어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한국불교증흥을 위한 두번째 토론회 : 수행 결사

“종단, 철저한 수행으로 대중의 선망 받아야”, “사찰운영에 있어 자주와 자립정신 필요”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주최하는 한국불교증흥을 위한 두 번째 대토론회가 지난 2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는 조계종 화쟁위원회 부위원장 원택스님이 발제자로 나서 ‘한국불교 교단과 국가’를 주제로 살펴봤다.

원택스님은 이날 1947년 봉암사 결사의 ‘부처님 법대로 살자’라는 구호를 언급하며 사찰운영에 대한 스님들의 자주와 자립정신의 필요성을 먼저 언급했다. 스님은 “현대 한국불교에서 국가와의 관계를 고찰할 때 불교가 정권에 예속돼온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예측의 결과는 법난에 준한 사태뿐이었음을 강조했다.

일제로 정화운동을 살펴보자. 불교정화운동은 일제의 자재를 청산하고 불교의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불교계 내부의 움직임이었지만 이승만 정권의 소위 ‘정화유시’로 인해 번질 뻔했다.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모습 대신 관권과 결탁을 통해 내부 분쟁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한국불교를 소수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10.27 법난도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불교차별의 대표사례로 꼽히는 각종 규제법령도 이 무렵 만들어졌다. 전통사찰보존법은 1911년에 제정된 ‘사찰령’으로 출발해 1962년 불교재산관리법이 제정돼 사찰의 모든 사항을 정부에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하고, 재산관리인을 정부가 임의로 파견할 수 있으며, 재산권도 정부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후 전통사찰보존법으로 명칭은 개정됐지만 독소조항은 개정되지 않은 채 여전하다.

사찰 경내를 무단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자연공원법은 갈등의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 종단 소유의 토지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됐지만 여기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 게다가 공원 안 사찰 소유 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를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근현대 과정에서 불교계는 정권에 예속돼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1980년을 기점으로 사회적 발언과 역량을 키워온 것을 고려할 때 최근 두드러지는 국가의 차별과 종교편향은 불교계의 원인만은 아니다. “기독교원리주의에 입각한 이들이 우리 종교문화특성과 사회 역사적 배경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최근 불교와 국가의 문제가 단순히 종교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일색인 한국사회의 큰 흐름 속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박탈감을 느끼던 전통종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자 민족문화에 취약점을 가진 개신교가 이에 대해 강하게 시비를 거는 형세다. “개신교의 주류가 ‘친미 보수’라는 기독교의 논리에 편승해 몽니를 부려도 감히 시비를 걸 수 있는 세력이 없을 것이라는 그리고 사회정치적 보호막이 아직 남아 있다는 만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스님의 견해다.

스님은 일부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의 성시화운동이 공직자는 물론 사회 전반에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종교문제를 조정해야 할 정부가 기독교 근본주의 흐름 속에서 있기 때문에 더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종단을 향해 쓴 소리도 했다. 스님은 “지금 종단은 성철스님의 봉암사 결사 정신을 상기해 철저한 수행으로 일반 대중의 선망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출가수행자로서 위상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종단이 진행하고 있는

민족문화수호활동이 조계종 홀로 정부와 투쟁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며 종단협의회를 활성화시켜 범불교도 종합 발전대책을 마련해 전통문화와 민족문화 선양에 타종단과 더불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민족문화수호위원회 공동위원장 영담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불교에 대한 왕실의 비호가 불교융창의 절대 변수는 아니다”며 “반대로 조선왕조의 억불정책이 불교위축의 절대변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사요쟁 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에서 최근까지 30 여년간 불교신자가 2 억 여명이 늘고, 향후 4 년 내 4 억 명에 이를 것이란 예상을 제시하며 이를 중국정부의 지원 때문이라 보이게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스님은 “한국불교의 본래면목은 무엇이고, 1700 년 동안 민족과 함께 해온 한국불교의 생명력이 무엇인지 바로 볼 때 한국불교 증흥의 길에 보인다”며 “한국 역사에서 왕조는 흥망을 거듭했지만, 불교는 변함없이 우리 민족의 삶 자체일 수 있었던 힘은 부처님 가르침 그 자체에 있다”고 피력했다. 조선왕조 600 여년 동안 억압 받고 1954 년 200 여명의 비구승이 있었을 뿐인데, 지금은 불교신자가 2000 만명에 이르고 조계종 스님만도 1 만 3000 명으로 늘었다. “우리가 현재 민족문화수호와 자주 자립을 담당하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런 역사적 사실이 바로 한국불교 증흥을 이루는 힘 즉 내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종교와 정치는 무관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결벽증은 정치인들에게 손해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손해가 될 뿐이고 어떤 면에서는 남에게 피해가 된다”며 “정치를 정치권력과 정치력으로 구분해 법을 만들고 고치는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교수 보광스님은 한국사회의 불교탄압이나 종교차별의 원인이 과연 국가권력이나 권력자들에 의해서만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자기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연 한국불교가 불교답게 정법에 의해 살아왔는지, 올바른 신행생활은 해 왔는지, 개신교가 인재를 양성하고 교인을 기르던 때 불교는 차세대 외호자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자력적인 선 수행만 강조하다보니 일반신도들의 종교적 요구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신앙적 갈등을 제대로 해소시켜주지 못하다보니 가톨릭이나 타종교로 개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자각신앙운동인 결사운동이 일어나고 타력신앙의 논리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종단에서 제기한 자성과 쇄신을 위한 5 대 결사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전했다. “5 대 결사가 우리 종단이나 불교계가 나가야 할 사회적인 방향임에 틀림없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단순한 예산문제로 빚어진 것처럼 보인다”며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편화 5 대 결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연된다면 더 좋은 방향제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재 한국불교는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자주성과 독립성을 훌륭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자주성이나 독립성의 문제는 국가나 정권의 문제이기보다 불교 내부의 문제거나 종단 지도부의 의지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불교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대정부 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클 것”이라며 “종교교단의 행정책임자들은 대정부 활동을 할 때에 합리적 논리보다는 주로 그 종교의 교세에 의지해 협상하는 면이 크기 때문”이라고 봤다. 즉 교단이 대정부활동을 할 때 합리적 논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막연히 교세에만 의지하다보니, 종교관련 주요정책을 정부의 시혜적 결정에 의지하게 되고 이런 점이 교단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할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종교와 권력을 서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으로 봤다. “국가의 개별정책에 시비를 가리려고 시작한다면, 우선 전문성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정파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종교는 가능하면 정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종교가 정치에 대한 입장 표명해야 할 때는 인권에 대한 부분과 국가공동체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될 때이다. 종교가 권력에 개입하면서 스스로 정치적, 정파적이 된다면 권력의 종교개입과 간섭을 막을 길이 없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권력을 종교편향과 관련해서는 스님이 아닌 불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은 사회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끄러운 현상”이라며 “각 종교 신도들이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한다면 한 단계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재 종단이 해야 할 일은 대정부 내지 대사회 활동에 필요한 기준과 정책, 논리를 준비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예컨대 불교정책연구기관인 불교사회과학원 같은 싱크탱크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세계변화와 한국사회에 대한 연구, 불교의 가치와 역할,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을 연구하는 등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준비하면 대정부 협상력이나 대사회 설득력도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역경의 완성과 계율정신의 회복이라는 두 가지 사안에 매진할 것을 주장했다. 빠알리어, 산스크리트어는 물론 티베트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외국어 통력을 갖춘 역경학자 양성에 종단이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 맞는 새로운 계율제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행승, 포교승, 행정승 등 각각의 스님들의 역할에 맞게 계율을 현실화, 현대화 한 다음 철저히 지켜야 종교의 생명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불교의 대중조직의 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공직에 있을 때 향교를 돌아본 적이 있다”며 “피폐함을 목격하고 정부가 전통문화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한다. 향교가 피폐해진 이유는 유교가 종교로서 갖는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반면 기독교 같은 경우를 보면 매주 목회를 하고, 신도들이 조직화돼 있다. 불교는 그렇지 못하다. 김 교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교를 이용하게 돼 있고 이용하려고 한다”며 “표를 먹고 사는 민주주의 질서 안에서 정치라는 것인 기본적으로 종교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이용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만약 발언을 잘못해서 손해된다고 하면, 발언을 자제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특정종교 지향적인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그런 발언을 해도 괜찮은 분위기, 그런 힘의 관계가 성립돼 있다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동안거 해제 현장 : 예산 향천사 천불선원을 가다

“공은 이해하는 것 아니라 체득해야”

달마스님은 “마음이 곧 부처라 참으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자기 성품을 깨쳐야 한다”고 했다. 이번 동안거에도 선방에 2300 여 명의 스님들이 전국 100 개의 선원에서 부처가 되고자 정진했다. 예산 향천사 천불선원도 마찬가지다. 동안거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16 일 천불선원은 말 그대로 세계일화(世界一花)의 현장이었다. 각국의 스님들이 모여 깨달음을 향해 치열하게 정진하고 있었다.

향천사 천불선원(선원장 효성스님)은 예산읍에서 차로 5 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읍내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임에도 사방이 적요해 수행하기 적합하다. 향천사는 백제 의자왕 16 년(650 년)에 의각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스님은 중국 구화산에서 삼천불을 조성해 백제로 모셔와 사찰을 세웠다. 이후 쇠락을 반복하던 향천사는 6.25 때 전소됐는데, 천불전만 유일하게 화마를 피했다고 한다.

근대 들어 월정사 출신의 보원스님이 재창건했다. 스님은 향천사에 선원을 열고 납자들을 제접했다. 매년 10 명 남짓의 수행자들이 수행하던 천불선원에 지난 하안거 때부터 외국인 스님들이 방부를 들이기 시작했다. 이번 동안거에도 10 여 명의 외국인이 여기서 한 철을 살았다.

천불선원에 방부를 들인 14 명의 스님 가운데 6 명은 외국인 스님이다. 여기에 4 명의 외국인 불자가 함께 천불선원에서 동안거를 지냈다. 국적도 다양하다. 가장 구참인 우봉스님은 미국인, 입승 현문스님은 폴란드 사람이고 이외에도 러시아와 라투니아에서 온 스님과 일본에서 출가한 미국 스님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송산스님(1927~2004)이 한국불교 포교를 위해 설립한 관음선 종단(觀音禪宗團)의 150 여 개 해외지부에서 참선하다가 한국의 선불교를 직접 체험하겠다는 일념으로 향천사 천불선원까지 왔다. 여기에는 선원장 효성스님과 인연도 한몫했다. 효성스님과 우봉스님은 1981 년 수덕사 선방에서 함께 안거를 지냈다.

조실 격인 우봉스님은 1972 년 미국에서 송산스님을 만나 불교에 귀의했다. 유대계로 폴란드 출신의 미국인 우봉스님은 현재 유럽과 러시아 지부에서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천불선원에서 두 번째 동안거를 지낸 스님은 이번에도 외국인 스님들의 수행을 점검했다.

해외 선원과 한국 선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봉스님은 “수행하는 것은 똑같다”며 “다만 도심에 있어 수행환경이 좋지 않은 해외에 있는 선센터에 비하면 한국의 선방은 극락 같다”고 대답했다. 특히 외국 선센터는 가정집을 빌려 운영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다. 공간은 좁은데 수행하겠다고 오는 사람은 많아서, 누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용맹정진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스님은 “독립된 환경에서 참선하고 수행할 수 있는 천불선원의 동안거 결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거기간 동안 스님들은 천불선원과 서선방을 오가며 매일 10 시간 씩 참선했다. 간화선 수행을 하는 스님들 면면을 보면 가톨릭 신자가 많은 폴란드, 기독교 신자가 대부분인 미국, 그리고 유대인 출신으로 대다수가 유일신을 믿는 종교권에서 자랐다. 그런 이들이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이유가 궁금해진다.

바로 송산스님의 가르침 때문이다. 스님은 오래전부터 인간위주의 과학과 물질문명이 가져온 폐해를 지적하며 진리를 깨달아 대자연과 하나 되는 공부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강조했다. 이에 공감한 많은 서구인들이 화두를 참구했다. 놀랍게도 미국의 선원에서 수행하는 사람 가운데 40%는 유대인이라고 한다.

우봉스님도 유대인으로 출가한 경우다. 해제 때는 후학들을 지도하다가 안거 철에는 한국에서 정진한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맑은 거울처럼 모든 것이 공(空)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체득하기 위함이다. 스님들은 수행 못지않게 울력도 열심이다. 주지 범정스님은 “외국인 납자들과 안거를 지내보니 한국의 어떤 수좌들보다 규칙적이고 착실하며 계율 또한 엄격하게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매일 10 시간 정진과 함께 하루 1 시간으로 정해진 울력에도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덕분에 향천사는 다음 철까지 쓸 땀 나무를 마련해줬다. ‘보일러 마스터’라 불리는 입승 스님은 향천사 서래암 보일러와 굴뚝까지 수리했다. 이처럼 사중에 일손이 필요한 곳이면 마다하지 않았다.

수행하는 데 경계가 있을리 없지만 한국 사찰에서 동안거 결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보였다. 올 겨울 유난히 추운데다가 눈도 많았기 때문이다. 음식 역시 스님들에게는 극복해야 할 ‘장애’ 아니었을까. 묵언 속에서 점심공양을 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문득 공양간 탁자 위에 놓은 커다란 땅콩버터 통에 눈길이 갔다. 이유를 물으니 땅콩버터에 밥을 비벼 먹는 외국인 스님들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인에게 고추장이 고국을 의미한다면, 유럽에서 온 스님들에게는 땅콩버터가 해방구인 셈이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는 바게트 빵 역시 스님들이 좋아하는 특식이다.

선원장 효성스님은 “수행을 하는데 있어 국적이냐 언어 생김새 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수행도 울력도 치열한 외국인 스님들의 모습은 한국의 여러 납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님은 “향천사에서 보다 많은 외국인 납자들이 수행할 수 있게 천불선원을 국제선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느 해보다 춥고 힘들었던 동안거가 끝나고 스님들은 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선다. 어떤 스님은 사찰에 머물며 보임(保任)하고 또 누군가는 모든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만행(萬行)을 한다. 현문스님은 향천사에서 보임하면서 오는

하안거에 다시 천불선원에 방부를 들일 예정이다. 우봉스님은 이스라엘과 유럽, 홍콩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하안거 때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결제에 동참한다.

다른 스님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동안거 해제와 함께 겨우내 굳게 닫혔던 산문을 활짝 열리자 스님들은 바람을 메고 중생 속으로 만행을 떠난다.

-불교신문 2월 20일자에서 발췌-

김재성의 불교와 심리치료: 역기능적 사고가 고통 부른다

- 명상, 수행 목적은 자기성찰과 고통 경감; 괴로움 원인 찾아 잘못된 생각 고쳐야...

불교와 심리치료를 접목시킨 대표적인 심리치료자로서 정신분석의 전통의 정신과 의사 마크 엡스타인(Mark Epstein, 붓다의 심리학)과 일본 심리치료와 불교를 접목시킨 심리치료자인 데이빗 브레이저(David Brazier, 선 치료, 1995)에 대해서 고찰해보자.

조이 매니(Joy Manne)의 <현대 불교 심리치료 만들기>(Creating a Contemporary Buddhist Psychotherapy, 경험의 권위: 불교와 심리학에 대한 논문들 The Authority of Experience: Essays on Buddhism and Psychology)에 의하면, 이 두 저술은 실제 심리치료전문가이자 자신의 불교 수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교와 심리치료를 접목한 현대의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한다.

인지행동치료의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는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감소(MBSR) 프로그램을 만든 존 카밧진이라고 할 수 있다. 카밧진은 심리치료 전문가가 아니지만, 1979년부터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시행해온 MBSR을 통해 위빠사나 또는 마음챙김명상이라는 불교명상을 행동의학에 접목시켰으며, 수용(acceptance)과 알아차림(awareness)을 핵심 치료요소로 하는 인지치료의 제 3 동향의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신분석, 행동치료를 중심으로 한 서양 심리치료와 마음챙김 명상을 기반으로 한 불교심리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풀튼(Fulton)과 시겔(Siegel)이 <불교심리학과 서양심리학: 공동의 기반을 찾아서>(Buddhist and Western Psychology: Seeking Common Ground)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먼저 불교의 마음챙김과 심리치료 사이에 최소한 두 가지 분명한 관계성이 나타난다. 첫째, 마음챙김 명상은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제안된 신중한 수행으로 서양 심리학과 대조될 수 있다. 둘째, 마음챙김 그 자체는 현재 경험을 수용하면서 알아차리는 것으로 서양심리학과 마음챙김 명상 양 쪽 모두에 효과가 있다.

먼저 불교와 심리치료의 공통점은 두 전통 모두 심리적 괴로움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양 심리학처럼 불교의 마음챙김 명상은 심리적 원인 때문에 생긴 괴로움을 대처하기 위해 발전했다. 심리치료처럼 마음챙김 명상의 주 영역은 생각, 느낌, 지각, 의도,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불교심리학은 심리적 장애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서양의 심리치료와 자연스럽게 공유한다. 두 체계는 1) 증상(苦)을 확인하고 2) 병의 원인(集)에 대해 설명하고 3) 예후(滅)를 제안하며 4) 치료법(道)을 처방한다.

마지막 치료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정신역동, 행동주의, 마음챙김 명상 모두 자기성찰(內省)과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행동변화를 필요로 하며, 통찰과 진리의 발견을 중시한다.

불교와 심리치료는 사고의 역할과 목적, 자아관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사고의 일탈이 괴로움의 원인이고,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는 것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역기능적인 사고에 의해 고통이 생겨난다고 보는 것이다.

정신역동치료에서는 언어는 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도구이다.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기, 갈등이나 욕구 등이 발설된 말(spoken words)에 숨겨진 형태로 나타난다. 이처럼 치료가 언어에 의존하기 때문에 심리치료자와 환자는 말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제 3의 귀'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마음챙김 명상은 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기 때문에 다른 심리치료 전통과 구분된다. 마음챙김 수행은 언어에 의해 중재되지 않은 집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에서 이해되는 내용 또는 이야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또한 과거나 미래에 대한 광범위한 사고에 빠져 있다면 마음챙김 수행 영역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한국 기독교인, 티베트 성지에 말뚝박아 “논란”?

한국 기독교인이 티베트 성지에 성경문구가 적힌 말뚝을 박았다는 글과 사진이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지난 15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중국 간쑤성(甘肅省)에 있는 샤허(夏河)에서 목격한 한국 기독교인의 만행을 고발하는 글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곳 티베트불교 사원 라부령사(拉卜楞寺)에서 남자 1명, 여자 2명의 한국인 일행을 만나 티베트 청소년의 가이드를 받던 도중, 이들이 오체투지를 하는 순례자들을 보며 '오 주여'를 연신 외치더니 남자일행이 배낭에서 말뚝을 꺼내 라부령사 주위에 박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티베트인이 직접 말뚝을 박으면 효과가 좋을 것"이라며 "이것을 박으면 티베트 불교의 힘을 더 강하게 해준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 말을 믿은 티베트인 가이드는 사원둘레에 말뚝을 박았다.

이 네티즌은 "한국인 일행과 헤어지고 난후 가이드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박았던 말뚝들을 함께 다시 뽑아냈다"고 전했다.

샤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간쑤성 간난티베트족자치주의 현급 행정구역으로 전체 인구의 78%가 티베트족으로 구성, '제 2의 티베트'라고 불린다. 라부령사는 티베트 고유어로 '생불이 거쳐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티베트인들에게는 성지로 여겨지는 사원이다.



↑A 씨가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공개한 티베트 현지 가이드가 라부령사 주변에 말뚝을 박고 있는 모습



↑성경 말씀이 적힌 말뚝 사진

-머니 투데이 2월 23일자 기사에서 발췌

이미령의 백유경 이야기: 까닭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 다섯 명의 거친 폭력배

“저희는 이제 서쪽으로 떠나려 합니다.”

스님들이 사리불존자를 찾아가 작별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존자는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어디를 가나 누구에게나 틀림없이 ‘스님들의 존경하는 스승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그대로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즉, ‘우리 스승님은 욕망의 극복을 가르쳤습니다’라고 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것이 됩니다.”

사리불존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에 대한 욕망의 극복을 가르치셨냐고 그들이 물으면 ‘우리 스승님은 오온(五蘊)에 대해서 욕망을 극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색(色)과 느낌(受), 생각(想), 결합(行), 식별(識)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욕망이 일어나거든 그것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대체 이 오온에 무슨 위험이 있기에 오온에 대해서 욕망을 극복하라고 가르쳤는지 묻는다면, ‘이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오온이 변하면 그는 뜻하지 않은 변화와 쇠멸을 겪는 바람에 슬퍼지고 비탄하며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욕망을 극복하라고 가르쳤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사리불존자의 설명입니다.

오온에 대해서 극복해야 할 욕망이란 바로 ‘오온은 내 것이다, 내 맘대로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착각인 것이지요. 오온 즉 ‘나’를 구성하고 있는 존재의 바탕은 변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오온에는 변화(달라짐)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건만 사람들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오온의 변화가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내 마음에 맞게, 내 기분에 흡족하게 달라질 때도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존재의 바탕을 이루는 오온의 변화는 무자비하게 다가옵니다. 인정사정보지 않고 생노병사라는 허리케인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대체 왜 이래? 누구 맘대로 달라지는 거야? 내가 바란 건 이런 게 아냐”라며 서운하고 불안해해도 소용없습니다.

오온이란 것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내 마음을 배신하는지 아시나요?

다섯 사람이 돈을 모아서 하녀 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하녀에게 명령했지요. “자, 빨리 내 옷을 깨끗하게 빨아라.” 하녀가 그 옷을 채 빨기도 전에 두 번째 사람이 명했습니다.

“내 옷을 빨아라. 어서!”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가 무섭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도 각기 자기 옷을 먼저 빨라고 명했습니다. 다섯 사람의 독촉을 받아 하녀가 대답했습니다.

“차례대로 옷을 빨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다섯 사람이 일제히 하녀에게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거금을 내서 너를 고용했는데 대체 누구 옷을 먼저 빨고 누구 옷은 나중에 빨다는 거냐?”(백유경 51 번째 이야기) 주먹을 휘두르는 무시무시한 다섯 사람은 바로 ‘나’를 이루고 있는 다섯 가지 바탕(오온)이요, 그 다섯 사람의 폭력을 고스란히 당해낼 수밖에 없는 하녀는 바로 늙거나 병들거나 죽음이라는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자꾸 까닭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거나 허무함에 자주 사로잡힌다면 그건 외부 대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온이 주먹을 휘두르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리불 존자의 말씀입니다.

법회소식 NEWS

- 조지아주 부다나라 정기 법회는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에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관심있는 분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법회장소는 Pinckneyville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 5 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정기법회는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입니다. 주소는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Norcross, GA 30071 입니다. 구글에 찍으면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Doraville, GA 30360 으로 나오는데 꼭 Norcross 로 오셔야 됩니다
- 2010 년 11 월부터 애틀랜타 와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정기 법회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독송하고 친숙한 경전중 하나인 “천수경”을 강의합니다. 3 월달에는 천수경 제 5 회째 내용으로 “관세음보살의 별원” 을 법문합니다. 꼭 법회에 참석하시어 “천수경”을 다시한번 음미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 3 월 12 일 (음력 2 월 8 일) 은 부처님께서 왕궁을 버리고 인류의 스승이 되기 위해 출가하신 출가재일이고, 3 월 19 일 (2 월 15 일)은 80 세로 약 45 년간 전법으로 인류에 큰 발자취를 남겨주고 열반에 드신 열반재일 입니다. 이와 같이 3 월은 출가재일과 열반재일이 함께한 의미있는 달 입니다. 불자님들도 마음을 새로이 해서 신묘년 한 해 복전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수행정진 바랍니다.
- 1 월 20 일날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에 오셔서 전법 정진하셨던 도수스님이 3 월 2 일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세인트루이스와 애틀랜타 신도님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스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기쁜 소식입니다.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에서 정진하고 있는 선법 조승호 거사님 가정에 2 월 21 일 건강한 첫째 아드님이 태어났습니다. 아드님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나길 부다나라 식구들 모두는 두손모아 축원드립니다.

2011 년 2 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260 번 계해생 조윤영, 261 번 기사생 장성우, 281 번 기축생 구산 박예훈, 282 번 영산 박지훈, 283 번 경진생 최민재, 433 번 계사생 전정수, 434 번 을미생 이재입.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 (백 팔 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부처님 불사: 을유생 범성월 신동희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부다나라 (불국사), 또는 한국 불국회 로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